

“훈련은 쓰고 우승은 달다”...K리거, 약속의 땅으로

해외 전훈 떠나는 K리그 구단

효과 본 서울·울산·인천 또다시 광·일본으로
전북 브라질·경남 사이프러스...장거리 일정
포항, 터키 강행군...동북부 상위클럽과 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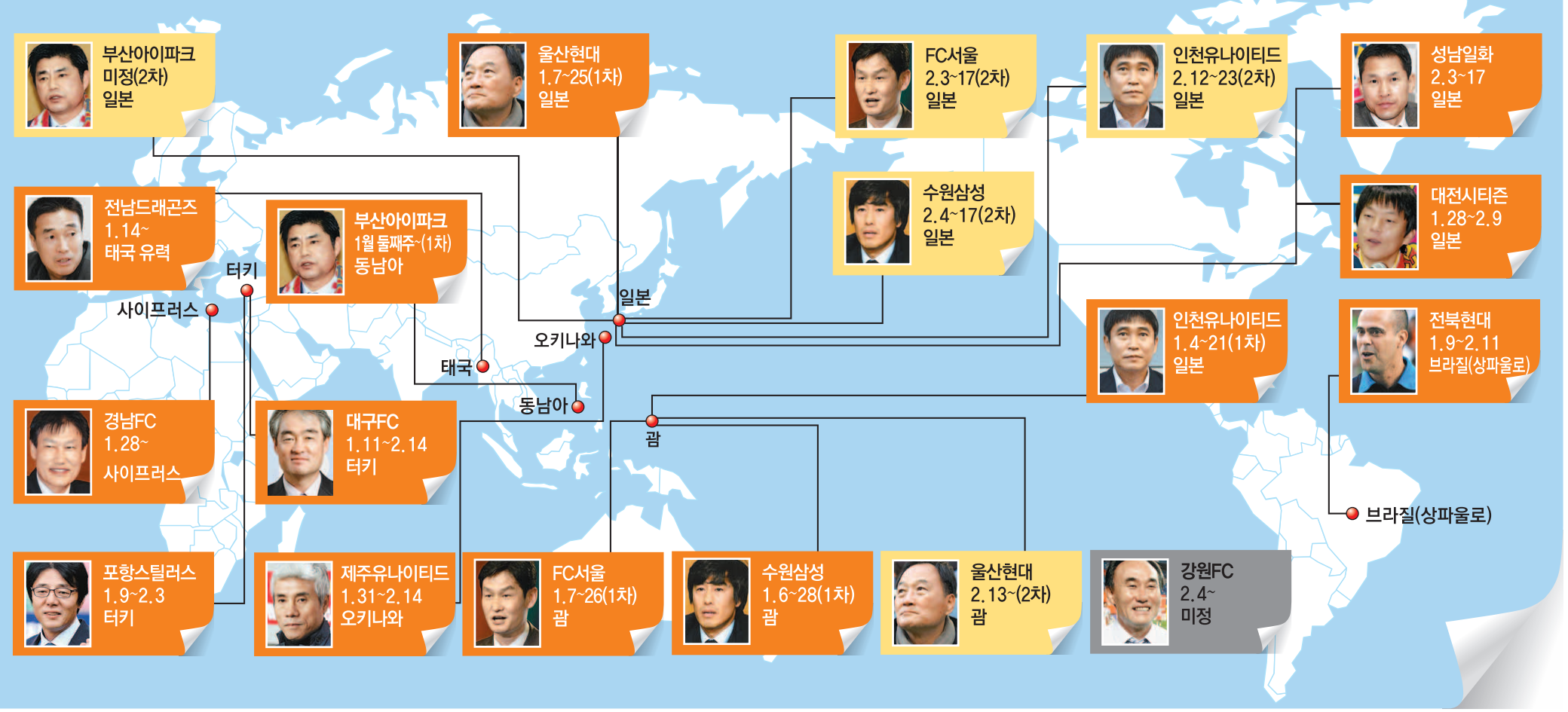
K리그가 2013년을 향해 힘찬 발을 올린다. 2012시즌 종료 후 한 달간의 휴식을 마친 K리그 구단들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첫 출발점은 국내에서 열리는 전지훈련. 체력과 전술, 조직력의 극대화가 시즌 성적을 좌우한다.

●‘약속의 땅’으로

광과 일본을 묶은 ‘전훈 패키지’는 2012시즌 최고의 성적을 냈다. FC서울과 울산 현대가 주인공. 서울은 시즌 초부터 상위권을 유지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큰 부상 없이 전력 누수를 막았다. 기록 없는 경기력으로 단 한번의 연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우승이었다. 울산도 다르지 않다. 시즌 중반까지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했다. 시즌 후반에는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이 같은 성과는 1월과 2월 두 차례 다녀온 광과 일본 전훈의 열매였다. 따뜻한 기후와 최상의 시설을 자랑한다. 인접한 거리로 여행의 피로도를 낮추고 시차를 줄이는 데도 좋다. 두 팀은 시즌 내내 강한 체력과 조직적인 플레이를 이끌어냈다. 서울은 대형 포리스트를 떼고 첫 시즌을 맞이한 최용수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었다. 울산은 김호근 감독의 첩보 축구와 ‘이적생’ 이근호, 김승용이 공격 색채를 더했다. 서울과 울산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스로 간

2013년 K리그 1부 리그 동계 전지훈련 장소 및 일정



다. 수원 삼성도 광과 일본에 캠프를 차린다. 신입 사정원 감독의 구상에 따라 기존 선수들과 신예들의 조직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그룹B'의 최강자 인천 유나이티드도 광과 일본을 거점으로 잡았다. 인천은 올 초 2차 전훈지였던 광주에서 친선경기 상대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013년에는 보다 나은 전력을 갖고 있는 일본 J리그 클럽과 평가전을 갖는다.

●익숙한 K리그 세로움으로

장거리 전훈을 선택한 구단들도 눈에 띈다. 전북은 2013년에도 브라질 상파울로로 이동한다. 모기업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어 현지 분위기도 우호적인데다 축구에 전념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이미 10월 답사팀을 보내 세부 일정을 조율했다. 장소를 이동하는 타 구단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한달여의 장기 전훈에 돌입한다.

경남FC도 올 초 떠났던 사이프러스를 다시 전훈지로 정했다. FA컵 준우승과 그룹A에 포함됐던 좋은 기억을 살려 2013시즌 돌풍을 맞겠다는 각오다. 익숙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again 2012'를 노린다.

포항은 터키에서 새 시즌을 준비한다. 올 초 가졌던 제주와 인도네시아의 전훈을 접고 완전히 다른 장소로 변경했다. 이유가 있다. 포항은 시즌 초반부터 전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하위

권에 형성되며 고전했다.

구단 관계자는 "2년간 제주에서 훈련했다. 전력이 약한 대학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뛰다보니 조직력을 점검하는데 실패했다. 2013년에는 터키 동북부 상위권 팀들과 경기를 갖고 초반부터 전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FC는 작년 브라질에서 터키로 장소를 변경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한국축구, 그라운드선 헤트트릭...행정은 '헛발질' 망신

임내라 한국축구 (끝) 차기 축구협회 집행부의 숙제

기술위 무시하고 대표팀감독 해임·잔여연봉 법적 소송
법인카드 비리 사건...1억4000만원 위로금으로 입막음
박종우 올림픽 독도세리머니, K 축구협에 굴욕적 해명
조중연회장 1월28일 임기 마무리...투명한 행정 과제로

한국축구는 올해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 K리그 울산 현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 AFC U-19 챔피언십 우승,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 8강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2013년엔 반드시 행정 쇄신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식 없는 축구협회?

조광래 전 대표팀 감독은 작년 12월 기술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 경질됐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여진은 끝나지 않았다. 협회는 조 전 감독에게 당연히 줘야 할 잔여 연봉을 지급하지 않았고, 참다 못 한 조 전 감독은 최근 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가 들어갔다. 앞서 협회는 국내 코치들에게 당초



한국축구는 올림픽 동메달 등 굵직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잦은 허점을 드러냈다. 조중연 회장이 8월17일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한 자차세 외교로 국회 문방위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기(2012년 7월)가 아닌 4개월, 브라질 출신 가마 코치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으로 7개월분 전액을 줬다.

블랙 코미디는 계속됐다. 협회는 올 초 축구 용품을 훔치려다 발각된대 이어 협회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프트 카드로 바꿔 활용을 시도하려던 비리 직원에게 위로금 1억4000여 만 원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하다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체육회의 감사를 받고 법적 소송을 벌이는 불행사나운 꼴을 보였다. 10월 말 민사재판 결과 패소해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가장 즐거운 순간에 최악의 행정력이 드러난 사건도 있다. 박종우(부산)의 런던올림픽 독도 세리머니 해프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회는 일본축구협회(JFA)에 사과 누양스가 분명한 해명 공문을 발송해 공문을 썼다. 결국 협회는 국회 증언대에 서야했고, 국정감사 증언으로도 채택됐다.

●내년 1월이면 바뀔까?

협회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잇따른 졸속 행정으로 굴욕을 당했던 조중연 회장 체제도 내년 1월28일 제52대 회장 선거가 끝나면 마무리된다. 조 회장이 선거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와 김석한 한국중등축구연맹 회장이 나서고, 축구 야당의 대표 격인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안종복 남북체육교류협회장 등도 도전장을 던질 전망이다. 이 중 정 총재와 허 회장은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회장이 바뀌면 뭘 달라질까. 축구인들의 시선은 곰치 않다. 깨끗한 축구계를 만들겠다고 너도나도 투명 행정을 외치지만 협회장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각 시도 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 뒷말이 많다. 절차를 지키는 투명한 행정과 걸라선 축구인들을 한 데 아우를 수 있는 투명행정이 나와야만 2013년의 한국 축구 행정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축구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교체출전은 박성용이 체력안배 "Ki, 여전히 스완지 키플레이어"



기성용(23·사진)의 스완지시티가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스완지는 29일(한국시간) 런던 크레이븐 코디티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럼을 2-1로 꺾고 승점 3점을 쟁겼다.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성용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 추가 시간까지 49분여 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교체 출전은 많은 선수층 극복 위한 선택

기성용의 시즌 첫 공격포인트는 이번에도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충실하게 역할을 했다. 공수 전반에 걸쳐 인상적인 플레이를 했다. 어시스트로 직결될 만한 킬 패스가 두어 차례 나왔다. 이를 스완지 공격진이 놓쳤을 뿐이었다.

기성용은 벤치에서 전반전을 지켜봤다. 눈에 띄게 잦아진 교체 출전 빈도와 줄어든 풀타임 소화, 정규리그 반환점을 돈 현 시점까지 '제로(0)'인 공격 포인트. 이를 두고 주변에선 '불안한 입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여기에 기성용의 대체 자원으로 평가돼 온 어거스틴의 약진도 위기에 몰려 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기상조다. 두껍지 않은 스쿼드를 극복하기 위한 스완지의 생존 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 스완지는 부상과 경고 누적 등에 의한 빈 자리를 채워줄 대체 자원이 없는데다, 비싼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행편이 아닌 탓에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특히 요즘은 크리스마스 전후해 2~3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박성용' 기간이라 선수들의 컨디션 안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스완지 관계자 역시 "우리 팀의 키플레이어는 키(Ki·기성용)"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사실 기성용 외에도 빠진 선수들은 많았다. 스완지 라우드럽 감독은 브리튼, 벤 데이비스 등 핵심들을 대거 선발에서 뺐다. 올 시즌 13골을 몰아친 스페인 공격수 미구엘 미추가 발목부상으로 빠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스완지 벤치는 중원을 거치며 볼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버리고, 좌우 측면과 빠른 역습을 주무기로 내세웠다. 기성용은 전형적인 패싱 요원이다. 여기에 어거스틴은 전반에만 여러 차례 벤치 앞으로 불려가 라우드럽 감독으로부터 위치 선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아직 스완지의 '믿을 맨'은 기성용이다.

번역(영국) | 이지훈 통신원

이청용 4호골, 승격 불씨 살렸다

불탄, 버밍엄전 결승골로 상위권 도약 발판 마련
"부상 거의 회복...자신감도 예전으로 돌아왔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이청용(불탄)이 시즌 4호골을 터뜨렸다. 이청용은 30일(한국시간) 영국 불탄 리복스타디움에서 열린 버밍엄과 2012~2013시즌 25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33분 역전 결승골을 작렬해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양 팀이 1-1로 맞선 상황에서 이청용은 케빈 데이비스가 왼쪽에서 연결한 패스를 골 지역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를 모두 제치고 골 망을 흔들었다.

●자신도, 팀도 살린 한 방

불탄은 키오프 11분 만에 첫 골을 내졌지만 전반 27분 마르코스 알론소의 동점골에 이어 이청용의 역전포로 승부부

Chungy Delight At Reebok Strike

Posted: Sat 29 Dec 2012
Author: DWFC Staff



불탄 이청용(왼쪽)이 30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챔피언십 25라운드 버밍엄과 경기에서 폭발적인 드리블로 시즌 4호 골을 성공시킨 뒤 팀 동료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불탄 홈페이지

뒤집었다. 후반 34분 키스 앤드류스의 페널티킥 골은 보너스, 차기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꿈꾸는 불탄에 이날 경기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전까지 7승8무9패로 버밍엄에도 패할 경우 상위권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뻔 했다. 하지만 이

청용이 팀을 살렸다. 유독 골 찬스에 약해 '소녀 슛'이라는 비아냥까지 감수해야 했던 그의 한 방으로 승점 32를 찍은 불탄은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청용도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깼다. 그는 10월28일 미들즈브러와 13라운드 원정(1-2 패)에서 마수결이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11월11일 블랙풀과 16라운드 원정(2-2 무승부)에서 2호골을 기록했고, 지난 달 29일 블랙번과 19라운드에서 시즌 3호골을 작렬했다. 버밍엄전은 올 시즌 홈경기 첫 골.

이청용은 "오늘을 만끽 즐겼다. 홈에서 오랜만에 득점해 훨씬 기뻐다. (작년 7월 당한) 정강이 골절 부상에서 거의 회복했다. 자신감도 예전으로 돌아왔다"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불탄의 더기 프리드먼 감독 역시 "훌륭한 선수가 터뜨린 훌륭한 득점"이라며 "작년 끔찍한 부상을 딛고 일어서서 이청용은 찬사를 받을 만 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청용이 불탄에서 올린 한 시즌 최다골은 데뷔 시즌이던 2009~2010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올린 5골(8도움)이었다.

남정현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ss23@donga.com 트위터@smss23